

무안 관내 중학교 일일기자체험



6일 무안 남양중학교 학생기자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도슨트로부터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민(남양중) 기자

# “아시아 문화의 축소판, ACC로 오세요”

지상1층 지하4층 창·제작 기관 일반인 등 대상 다양한 체험도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제작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각계각층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2015년 개관 이래 지역을 비롯해 전국, 세계 각지의 탐방객들이 찾는 아시아 문화 허브로 발돋움 중이다.

6일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생기자단이 찾은 문화전당.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합성이 울렸던 이곳은 현재 지상 1층 지하 4층의 아시아 문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 이어져오고 있다. 먼저 지상 1층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당시의 외관을 고스란히 살린 채 80년 5월에서 비롯된 '민주'와 '평화'를 기리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이곳 내부를 개방하며 5월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상설 전시를 개최한다. 지하 1층에는 ACC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원이 위치해 있다. 어린이 문화원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아레나 형태의 무대를 가지고 있는 예술극장 등이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아시아 각국의 전래 동화들을 모아놓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구현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에는 문화정보원이 있다. 문화정보원은 주로 아시아 각국의 음악이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문화정보원에서는 ACC의 콘셉트라 할 수 있는 '빛의 숲' 조

명을 볼 수 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점 보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하 3층에는 문화창조원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창조원은 주로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에 공공미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게 했다. 임희영 ACC 문화해설사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의 축소판인 ACC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한승우·김사우·윤정진(남양중) 기자



## “아시아의 매력 오롯이 전해지길” 임희영 ACC 문화해설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 속 ‘아시아’의 의미에 대해 많은 방문객들이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개관과 동시에 문화해설사로 활동중인 임희영(35)씨는 “많은 관람객들 앞에서 ACC가 가진 의미를 소개하고 해설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해설을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ACC와 아시아의 가치에 대해 새로 생각해보신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기존 ACC를 방문해본적 있는 사람들도 해설을 통해 다시한번 돌아보는 경우가 많다”며 “아시아문화 아카이빙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ACC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고 밝혔다. 많은 방문객들 앞에서 ACC를 설명하는 점 임씨는 특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임씨는 “해설사라는 직업이 주는 매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점이다”며 “연령·직업 등과 상관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 진 지점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씨는 문화해설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진로와 성장의 과정이 동시에 연결돼 가지는 직업을 찾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해 보인다”며 “또한 직업적인 꿈은 물론 삶의 방향에 보다 가치를 두고 꿈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꼭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정민재·조호민·황조형·김유준(남양중) 기자

## “5월 광주정신 알리는데 힘쓸 것” 김향순 5·18기록관 안내해설원

김향순 5·18기록관 안내해설원

“기록관 개관 전부터 5·18 해설사로 일하며 광주정신과 5월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생기자단의 안내해설을 맡은 김향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안내해설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취재에 나선 학생기자단에게 5·18 설명과 기록물 해설 등 도움을 준 김향순은 1~2층 전시실 관람을 함께하며 5·18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고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전두환 신군부가 총칼로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안내해설과 함께 1·2층 기록물을 둘러본 학생기자단은 3D영상실에서 영상 감상이 이어졌다. 김향순은 “5·18 알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5·18 알리기에 힘써온 그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관을 방문해 5·18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예령·손하은·문서연·최민서·홍진솔(남양중) 기자



## 5·18 역사 그대로 간직한 기록관

유리창 원형 등 5월 광주 한눈에

6일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생기자단이 찾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이 관통한 광주은행 옛 본점의 유리창이 눈에 띄었다. 이 전시물은 광주은행에서 총탄이 관통된 유리창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7년 11월 광주시에 기증한 것이다. 당시 처절했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옛 가톨릭센터 건물을 쓰고 있는 기록관은 옛 전남도청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 기록관은 1층

에는 '항쟁'의 역사를, 2층에는 '민주화운동 기록'을 3층은 '유산', 4층은 자료실, 5층은 세계기록유산과 원본 기록물을 보존한 수장고, 6층에는 윤공희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집무실 복원과 구술영상 스튜디오, 7층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 강당이 있다. 이곳은 39년 전 계엄군의 만행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과 피신공간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구속자 석방,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계승투쟁의 주요 거점으로 쓰였다. 시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민주주의와 5·18정신을 지켜낸 상징적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 5월 1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개관해 이 곳에 의미를 더욱 부여했다. 기록관은 기록물의 보존 뿐 아니라 연구



6일 무안 남양중 학생기자단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찾아 5·18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와 전시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며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다. 학생기자단은 “해설을 들으며 전시물을 보니 5·18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군인들

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시민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너무 낯설게 들렸다. 너무 슬펐지만 역사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도연·백은진·백주은·정지민·김아연·이연우(남양중) 기자

## “보는 것을 넘어 창작자가 되라” 박다솜 광주콘텐츠코리아 책임

박다솜 광주콘텐츠코리아 책임

“최근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쓰는 것 등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다솜 책임이 하는 일은 웹툰이나 영상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지원된 물품 또는 지원금 등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이디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진 작품들의 퀄리티가 좋은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사람만 하는 일을 좋아하는 박 책임에게 이 일은 장단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찾지 않아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털어놓았다. 제작 지원을 받은 창작자가 고마움을 표시할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일례로 광주콘텐츠코리아 지원을 받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SNS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SNS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적절한 창작자를 찾아 콘텐츠 제작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김효원·이수민·주예슬(남양중) 기자



## 크리에이터 ‘놀이터’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융복합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오픈랩·메이크룸 등 공간 제공

광주지역의 콘텐츠 창작자, 창업인들이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영상융합문화관 빌딩에 위치한 광주콘텐츠코리아랩(G.CKL)이다. 6일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생기자단이 찾은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랩을 비롯해 개인창작실, 아이맥과 PC가 구비된 메이크룸 등 창작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콘텐츠 창·제작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도 구비돼 있다. 기어 VR, 아이패드, 집벌, 드론, 고성

능 광학렌즈, DSLR, 프로젝터 등 개인이 사기에 부담스럽지만 창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Play G. Round! G.CKL'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다. 창작자와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의미다. 박다솜 광주콘텐츠코리아 책임은 “가상 현실, 미디어아트, 융복합콘텐츠 중심의 다각화된 창·제작 지원을 통해 차세대 한류를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 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창작자가 시제품을 만들고 싶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융복합 콘텐츠가 있을 경우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미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있을 경우 창업, 투자를 위한 사업화 제작도 지원한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전남대학교 산학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학생기자단은 6일 광주 동구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을 방문했다. 김규민·박지후·최정원(오룡중) 기자

협력단 등과 같은 지역 대학교와 문화기획, 웹툰애니, 수중드론영상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아우라팩토리, 바닐라씨 등 민간 기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다. SNS를 통해 창작자, 콘텐츠 제작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소통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여행 예능, 드론레이싱 등 최근 콘텐츠 이슈를 다루면서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재 SNS 채널의 경우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다. 김태희·김세희(무안중)·박수안(남양중) 기자